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선출 ... 대선 앞두고 '변화' 선택했다

고흥 출신 5선 의원 ... 홍영표 의원에 0.59% 포인트 차이 앞서 당선
"민주당 이름 빼고 다 바꾸자" 호소 ... 정권재창출 시대적 과제 풀어야
최고위원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의원 선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변화'를 선택했다.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고흥 출신인 5선의 송영길 의원(58·인천 계양을)이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당원·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35.6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홍영표 후보는 35.01%를 기록, 불과 0.59%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우원식 후보는 29.3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용민(조선), 강병원(재선), 백혜련(재선), 김영배(조선), 전혜숙(3선) 의원이 선출됐다.

송 대표는 경선 기간 동안 "민주당이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내년 대선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 '쇄신론'을 제시하며 지지 호소했다는 점에서 당심이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수습하며 당 쇄신을 이끄는 동시에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를 안게 됐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날 당선된 새로운 최고위원들과 함께 정권재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송 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연설에서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유능한 개혁과 안정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

의 마음을 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인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번영의 실마리 찾기에 집중하겠다"면서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계 문제를 보완하겠다"면서 "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특히, "열정,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다"면서 "당의 자랑스러운 대선 주자들과 소통하고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송 대표 앞에 놓은 현실은 만만치 않다. 당장 1%에도 못 미치는 0.59% 포인트 차이로 친문 주자인 홍영표 의원을 간신히 누르는데다 강성 친문인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이 모두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내 친문 진영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등 정권재창출을 위해 당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당의 쇄신을 놓고 주류·비주류로 갈려 소모적 논란이 휩싸일 경우, 민심의 후폭풍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동산, 민생 경제, 백신 접종 등 각종 현안들의 해법 마련을 위해 당·정·청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며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송 대표가 고흥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당선이 예상됐던 서삼석

의원(무안·신안·영암)의 고배는 호남 정치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구심점 없이 사분오열된 호남 정치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송 대

표의 우선적 책무는 당을 결집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소통과 헌신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라선, 추석 전 SRT 투입될 듯

김희재 의원 "관계기관 협의 중"

이르면 올 추석(9월21일) 이전 전라선에 SRT(수서발 고속열차)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정문회 답변자료에서 "전라선(익산-

여수)에 SRT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라선에 SRT를 투입해 운행할 계획을 질의하자 이같이 언급한 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전라선 SRT 운행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희재 민주당 의원(여수)은 "현재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주)SR(SRT 운영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 중으로, 이르면 올 추석 전 SRT 1편성(객차 10칸)을 전라선에 투입하는 방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범 운행과 면허 갱신 등 관련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추석 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광주일보에 전했다.

전남도 역시 "전국철도노조가 열차 투입을 반대하는 등 일부 난제가 있으나 추석 전에는 SRT를 전라선에 최초 투입하는 계획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SRT가 운행될 경우, KTX(하루 편도 14회 운행)에 더해 강남행 열차가 신규 투입되므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이용자들의 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강남에 위치한) 수서역에서 전라선, 경전선을 운행하는 KTX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속철도 수해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서역 KTX 운행은 철도산업 구조와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사적 모임 6명까지 확대 시범 운영

광주 사는 장성군 공무원 코로나 확진 ...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전남에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확대된다. 다만 광주의 경우, 광주 거주 장성군청 간부공무원발 코로나19 확진자급증에 따라 강화된 내용의 거리두기 조치를 1주일간 연장한다. <관련기사 2면>

전남도는 2일 "정부 협의를 거쳐 3일부터 9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주일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최대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남도는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이날 전남 1049번 확진자 관련 추가 감염자가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429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에는 전남 1049번 관련 8명, 광업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 3명 등 15명이 발생했다. 장성군 간부공무원인 전남 1049번 확진자 A씨는 기침·오한 등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사한 결과 지난달 28일 확진됐으며, A씨 관련 누적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11명에 이른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소재 독서실과 교회를 방문한 이력 등이 확인됐다. 광주시는 3일부터 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경제 8·9면, 전남 전북 13·14·15면
새로운 지면으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힘내라 전라남도, 으랏차차 우리 농수축산물"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검색 남도장터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www.jnmall.kr)입니다.

남도장터에서 "남도 맛"을 잡았다

"내 손안의 장터"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무료 전화 070.7816.8510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남도장터 농수축산물 주문 방법

다양한 소식도 만나보고, 채팅상담으로 쉽고 편리한 쇼핑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채널 검색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